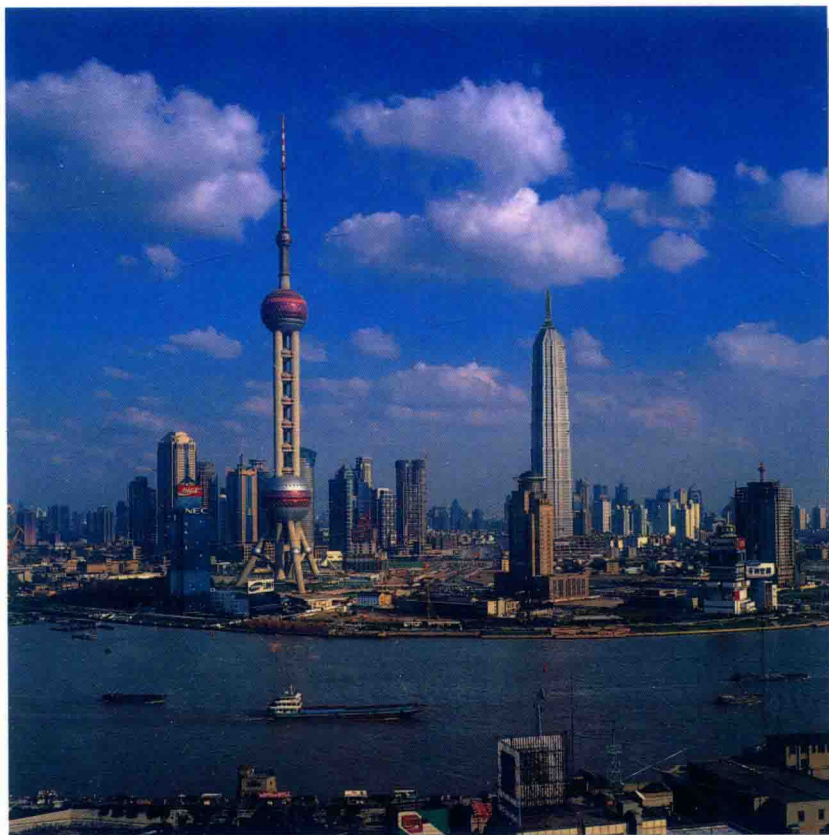




上海

상
해



外 文 出 版 社
외 국 문 출 판 사

상
해

上
海

외국문출판사
外文出版社

북경
北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上海:日、韩/兰佩瑾编。—北京:外文出版社,1998
ISBN 7-119-02225-3

I. 上… II. 兰… III. 摄影集-上海 IV. J426.5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98)第 17516 号

編 集:蘭佩瑾

文 :楊時進 吳 文
フォト:謝新發 達向群
楊中儉 陳克家
蘭佩瑾ほか

翻 訳:陳立權

レイアウト:元 青

上 海

ISBN 7-119-02225-3

1999 年初版发行

2004 年第三次印刷

© 外文出版社

外文出版社出版

中国北京百万莊大街 24 号

郵便番号 100037

ホームページ: <http://www.flp.com.cn>

電子メール・アドレス: info@flp.com.cn

sales@flp.com.cn

中華人民共和国にて印刷

편 집: 난패근(蘭佩瑾)

글: 양시진(楊時進) 오 문(吳 文)

사 진: 사신발(謝新發) 달향군(達向群)

양중검(楊中儉) 진극가(陳克家)

난패근(蘭佩瑾) 등

번 역: 안의운(安義運)

레이아웃: 원 청(元 青)

상 해(上 海)

난패근(蘭佩瑾) 편집

© 외국문출판사

외국문출판사 출판

(中國北京百萬莊大街 24 號)

우편번호 100037

홈 페이지: <http://www.flp.com.cn>

전자우편물 주소: info@flp.com.cn

sales@flp.com.cn

天時印刷(深圳)有限公司 인쇄

1999 년 (24 절지) 제1 판

2004 년 제1 판 제3 차 인쇄

编辑: 兰佩瑾
撰文: 杨时进 吴 文
摄影: 谢新发 达向群
杨中俭 陈克家
兰佩瑾等
翻译: 蔡关平
设计: 元 青

上 海

兰佩瑾 编

© 外文出版社

外文出版社出版

(中国北京百万庄大街 24 号)

邮政编码 100037

外文出版社网页: <http://www.flp.com.cn>

外文出版社电子邮件地址: [info @ flp.com.cn](mailto:info@flp.com.cn)
[sales @ flp.com.cn](mailto:sales@flp.com.cn)

天时印刷(深圳)有限公司印刷

1999 年(24 开)第一版

2004 年第一版第三次印刷

(日韩)

ISBN 7-119-0225-3/J. 1440 (外)

004800 (精)

상
해

上
海

외국
문출
판사
외
문
출
판
사

북
문
출
판
사



上海(シャンハイ)は、中国東海岸の中部、長江の河口近くの南岸にある中国最大の都市。人口1300万。

成り立ち 上海は紀元前3世紀すでに文字の記載があり、宋代(960～1279)に新興の貿易港となり、明代(1368～1644)に最大の綿紡織業都市となり、商業経済も日一日と盛んになってきた。清代の康熙24年(1685)、清政府の税関が上海に置かれてから、上海は「海外に通じる貿易港、東南地方の大都会」として次第に発達してきた。

アヘン戦争(1840)後の1843年、上海は外国植民地主義者に迫られて開港させられた。欧米列強がこの機に乗じて上海になわばりをして租界地を設置し、上海はついに「国の中の国」となってしまった。外白渡橋(ガーデン・ブリッジ)から今の延安東路までの約1.5kmに及ぶ黄浦江の西岸地帯は外灘(バンド)と呼ばれていたが、そこにずらりと立ち並んださまざまな建築様式のビル群はむかし欧米諸国の領事館、銀行、総会、貿易会社、新聞社などの所在地であった。その後百年間、上海は、外国植民地主義者が中国へ舶来品をダンピングし、中国から原料と財産を略奪する重要な中継地となり、「冒険家のパラダイス」となっていた。これと同時に、中国の軽工業、紡織業と加工業などの民族工業は困難にみちた苦闘の中で成長してきた。また、さまざまな勢力が上海で競争する一方、多くの思想家、革命者と文学者も上海で国の主権と民族解放のためにさまざまな闘争を展開してきた。バンドの外国建築群が外国植民地主義者の支配下にあった上海の縮図だと

すれば、魯迅の旧居・記念館、孫文の旧居、宋慶齡の旧居および中共一全大会の会場などは、中国人民の不とう不屈の反抗精神をうたったシンボルだと言えよう。

ふるい上海は奇型的に成長してきた都市であつたが、解放後のほぼ半世紀の間に、新生の上海は都市改造と建設を進める上でみなみならぬ努力を払った結果、大都会としての面目が一新し、いっそう内外で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現在、上海は中国で最も大きな貿易港であり、産業都市であるとともに、重要な金融、科学技術、文化、貿易の中心都市でもある。

買物天国 上海の商業は歴史が長く、集中した商店、揃った商品、すぐれた品質、最良のサービスとして従前から知られている。南京路、淮海路と老城隍廟商場などの大きな商店街は、「買物天国」といわれている。ここには多くの老舗や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をもって全国で知られており、地元の人はもちろん、よそからの人もあこがれて買物などして、賑やかである。とくに老城隍廟は小(店の狭さ)、土(地方特産品)、特(商品の珍しさ)、多(種類の多さ)を特色とするだけあって、買物客の人気を集めている。狭い商店街をぶらぶらしてみたら、気に入った品を見つければかりでなく、下町情緒もたっぷり親しめるだろう。

見どころ 上海は人口の多い繁華な都市で、市内でも観光客にとって見るねうちのあふ所が多い。明清両代の江南地方の庭園の粋を集めた豫園は、毎日約1万人の観光客を受け入れている。普陀区安遠路にある玉仏寺は、ミャンマーから奉迎してきた釈迦如来の白玉卧像と座像をそれぞれ卧仏堂と玉仏楼に安置している。江南地方の水郷の景色を呈する近郊と遠郊には、竜華塔・竜華寺、淀山湖の大観園、嘉定県の古猗園・秋霞圃、松江県の醉白池・方塔園、佘山のカトリック教会堂などがある。

市民生活 近年、上海で住宅団地が多く建設されたが、市民にとって弄堂(路地)に住みなれた石庫門(石柱の門柱に黒い門をつけた民宅の伝統様式)の旧宅が懐かしい。上海人は頭脳明敏で実行力に富み、切りつめた生活を送る伝統がある。そういう状況は日常生活の中でよく見かけられている。とくに朝市での主婦たちの買物風景は印象的だっ

た。野菜なら生鮮なものを、魚なら活きているものを、二、三の露店を回って比較したり値切ったりしてみなければなかなか金を出さず買わない。家に帰るときには、一日だけの食事に十分な野菜と魚肉が買い揃ってしまつた。

上海人は外来の文化を吸収しながらも自らの伝統文化にも熱中する。早朝、街頭の緑地や広場でディスコを踊る人が多いのだが、彼らにとって京劇、昆劇、越劇、滬劇、評弾などの伝統劇や音曲を見るのも大好きだ。毎年4月(旧暦3月)に竜華寺の縁日があり、軽食即売会や細工物の市(いち)は開かれ、曲技や武術、氣功の実演も行われる。縁日に見物する人々があふれ、肩と肩がふれあうほどの混雑ぶりだ。そこから伝統文化を愛する市民たちの気持ちがよく感じられるだろう。

新世紀へ 90年代初め、浦東新区の開発と開放は重大な戦略的決定として全世界に向かって宣言された。浦東新区は黄浦江を隔てて西の市街区と向き合い、面積522km²。浦東新区の開発と開放を契機にして、上海の改革・開放は新しい段階に入った。近年、上海の様相は日新日歩した。浦東新区では、南浦大橋、楊浦大橋、黄浦江トンネル、新しい港区と発電所など一連の基盤施設が完成して使用に入り、陸家嘴金融貿易区、外高橋保税區、金橋輸出加工区、張江ハイテク区なども一定の規模をもって発展してきた。浦東新区の開発は、上海をはじめ長江デルタ地域を連動して全国の改革・開放と経済発展を促す上で深遠な意義をもち、多大な影響を広めている。来世紀になると、浦東新区は金融、貿易、不動産、情報、物資配送の中心として発達するだろう。

상해

상해는 중국 최대의 도시로 1300 여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동부, 남북해안선의 중심에 자리한 이 도시는 황금수로 장강의 하구에 박힌 하나의 진주이다.

상해의 연혁 상해의 역사는 유구하다. 기원전 3 세기에 이미 문자기록이 있었고 송대(宋代, 기원 960 - 1279 년)에 신흥 무역항구로 되기 시작하여 명대(明代, 기원 1368 - 1644 년)에는 최대의 면방직업 중심으로 부상하였고 상업경제가 날로 발전했다. 청(淸)대 강희 24 년(1685 년), 정부가 상해에 세관을 설립하면서 상해는 점차 “해외로 통하는 무역항, 중국 동남부의 도회지”로 되었다.

1840 년 중국 - 영국간 아편전쟁이 발발했다. 1843 년 상해는 식민주의자들의 강박에 의해 통상항구로 개항되었다. 일부 국가들이 연이어 상해에 와 지반을 차지하고 조계지를 설치함으로써 “나라속의 나라”를 형성했다. 황포강반의 외백도교에서 연안동로에 이르는 약 1.5km 구간은 외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금도 거리 한켠에 주련히 솟아있는 각이한 풍격의 고층빌딩은 바로 당시에 설립한 영사관·은행·총회·상사·신문사 등 건물이었다. 그후 100 여년동안 상해는 외국 식민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상품을 텅핑하고 원료와 재물을 약탈하는 중요한 중계지로, “모험가들의 낙원”으로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의 민족산업인 경공업·방직업·가공업 등은 힘겹게 몸부림을 쳤다. 각종 세력이 이곳에서 충돌하고 힘을 겨루었다. 수많은 사상가·혁명가·문학가들이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호소하고 웨치면서 각종 투쟁을 전개했다. 외탄의 건축군을 식민주의 통치하에서의 축도라고 한다면 노신의 옛집·송경령의 옛집·중국공산당 제1 차대표대회 회장 등은 중국인민의 굴함없는 반항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것이다.

옛 상해는 기형적인 도시였다. 그러나 최근 반세기에 걸쳐 중국정부는 상해에 거대한 규모의 개조와 건설작업을 행하여 상해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로 부상시켰다. 현재 상해는 중국 최대의 대외무역항구와 최대의 공업기지이며 또한 중요한 금융·과학기술·문화와 무역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쇼핑천당 상해의 상업은 역사가 유구하며 예로부터 상점이 많고 품종이 다양하며 품질이 좋고 서비스가 주조하기로 이름났다. 남경로·회해로·노성황묘시장은 이상적인 쇼핑장소이다. 남경로와 회

해로에 밀집된 유명 노점포·현대화 상점은 사시정철 쇼핑차 찾아오는 타지방 사람·본지방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노성황묘는 소상품시장이 집중된 곳으로 소(소상점)·토(토산물)·특(특산물)·다(다종 품목)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쇼핑객들이 붐비는 이 좁은 거리의 작은 상점들을 누비노라면 상해시민들의 민풍과 인정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살 수도 있다.

변화가의 승경 상해는 인구가 밀집하고 변화한 도시지만 곳곳에 관광객들이 휴식·유람할 만한 장소가 있다. 명·청시기의 강남 원림풍격을 집대성한 예원은 매일 1만여명의 유람객들이 찾아든다. 보타구 안원도에 자리한 강남의 불교명찰 옥불사는 사원안의 와불당이며 미안마르에서 모셔온 백옥와 불과 좌상이 있어 더없이 귀중하다. 상해의 교외에는 강남 물고장풍경이 널리 펼쳐져 있다. 이름난 관광명소로는 용화담·용화사·정산호 대관원유람구·가정현의 고의원과 추하포·송강현의 취백지와 방담원·사산 천주교회당 등이 있다.

정다운 골목거리 최근 년간 상해에는 많은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현대화 주택시설이 제빨리 보완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오래도록 살면서 익숙해진 석고문이며 좁은 골목안의 옛집에 연연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상해인들이 총명하고 빈틈없이 매사에 계산이 면밀하다고 한다. 그 점은 그들 가정생활의 구석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매일 아침 가정주부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새벽시장에 가 우선 여러 노점을 누비며 값을 비해본다. 그리고는 알짜만 골라 값을 흥정한 뒤에 산다. 장바구니에는 어느덧 싱싱한 채소며 펄떡펄떡 뛰는 생선과 새우가 맞춤하게 정만되어 하루 찬거리로 부족함이 없고 또한 낭비도 안된다.

상해인들은 외래문화를 대담히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전통문화를 매우 사랑한다. 이른 아침 수많은 노인과 젊은이들이 거리의 화원이나 광장에 몰려나와 디스코를 흥겹게 춘다. 하지만 그들은 또 경극(북경오페라)·곤극·월극·호극·평탄 등 지방전통극과 구연을 흥미진진하게 감상하곤 한다. 매년 4월(음력 3월)에 개최되는 용문화제에는 각종 전통 명절음식과 정교한 수공예품이 전시되고 서커스·무술·기공 등 볼거리가 많아 번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신세기의 상해 90년대의 첫 봄을 맞으면서 중국정부는 포동을 개발, 개방할데 관한 중대한 전략적 정책을 세계에 선포했다. 상해시구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포동신구는 면적이 522km²이다. 대포동 개발과 개방을 계기로 하여 상해의 개혁 개방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년간 상해에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 포동신구의 남포대교·양포대교·월강터널·신항구·발전소 등 일련의 기초시설이 이미 완공, 사용되고 있다. 육가취금융무역구·외교교보세구·금교수출가공구·장강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발전하고 있다. 유지인사들의 예언에 따르면 포동의 개발은 상해의 진흥과 장강삼각주에 대한 연동, 나아가 전국의 진일보한 개혁 개방과 경제비약에 심원한 의의와 거대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포동은 금융·무역·부동산·정보·물자집산의 중심으로 될 것이다.



外灘(バンド)。長江の河口に注ぎ込む支流の黄浦江の西岸にあり、北は蘇州河と合流する地点から、南は延安東路、さらに南浦大橋に至る。バンドは1843年の開港後、外国植民地主義者によって占有され、領事館、銀行、総会などの建物が続々と出現して「冒険家のパラダイス」となった。上海解放後、外国植民地主義者が駆逐され、バンドの建物は昔のままによく保存されている。右上の写真は上海市の市花、ハクモクレ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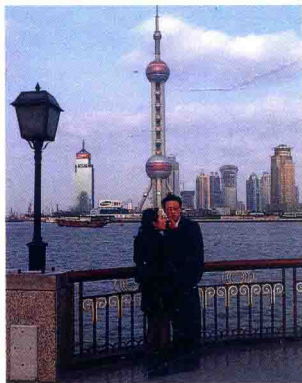


외탄은 장강하류의 지류인 황포강기슭에 위치, 복단은 소주하와 황포강이 합류하는 곳이고 남단은 연안동로 어귀를 거쳐 남쪽의 남포대교에까지 이른다. 1843년 상해가 열강들에 의해 개항한 후 외국 식민주의자들은 이 황금구간을 강점하고 각종 상점·은행·영사관 등 건축물을 건조했다. 따라서 이곳은 강에 배들이 분주히 오가고 강기슭에 상점이 촘촘히 들어선 이른바 “모험가들의 낙원”으로 되었다. 반세기전에 식민주의자들이 쫓겨간 후 이 건물들은 여전히 보전되어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추억과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오른쪽 옷사진은 상해시 시화인 목련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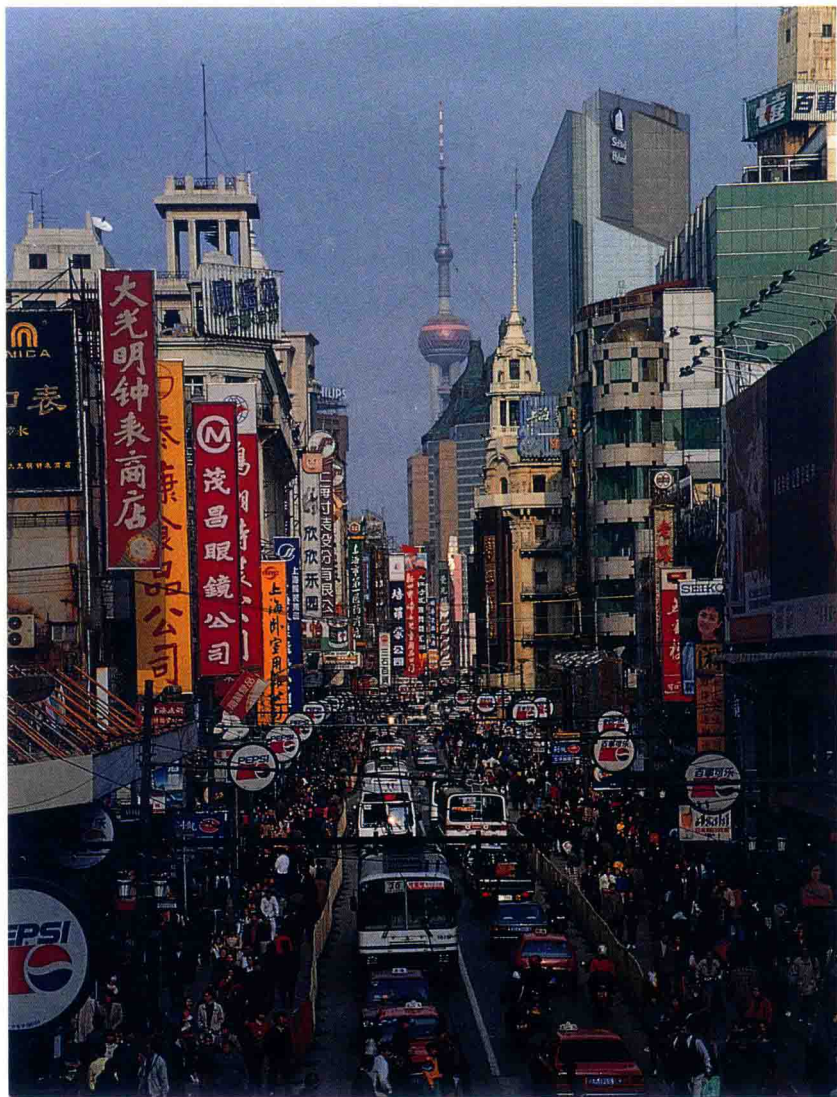
新しく発見された壁画。元香港上海銀行営業ホールのドームにモザイクタイルではめ込まれた彩色壁画は33点、内容はギリシア神話物語を描いたもの。この壁画は50年代に塗料で密封されていたが、近年ビルの新しい主人、浦東發展銀行が補修作業中それを再現させた。
夜、黄浦江の河畔は若いカップルのデートの地



외탄의 한 건축물에서 새로 발견된 벽화. 영국 고전풍격의 이 낡은 건물은 본래 영국 홍콩-상해연합은행의 영업빌딩이었고 건물의 궁형천정에 신화 이야기를 묘사한 33 폭의 천연색 모자이크벽화가 있었다. 50 년대에 벽화에 도료를 칠하여 봉해두었던 것을 최근에 빌딩의 새 주인인 포동발전은행이 수선작업을 하면서 옛 벽화를 다시 세상에 내놓았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면 황포강반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된다.

にぎやかな南京路。全長5400m。バンドから延安西路までの大通りに▷名店が林立する。南京路の夜景は不夜城のムーディー杯

번화가 남경로. 동쪽의 외탄에서 서쪽의 연안서로에 이르는 총 길이 5400m 구간으로 “10 리의 장가”로 불린다. 많은 유명 상점들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어 밤이면 불야성을 이룬다.





昔日の上海フラッシュ

- ① 1868年に開設された競馬場。1954年、人民広場となった。
- ② 昔のバンド
- ③ 1915年の福建路。当時、アパレルの街として知られていた。

옛 상해의 이모저모

- ① 1868년에 도박장으로 개설된 경마장이 1954년에 인민광장으로 재건되었다.
- ② 옛날의 외탄
- ③ 1915년의 복건로는 의류업으로 이름났다.



外白渡橋(ガーデン・ブリッジ)。蘇州河と黄浦江が合流するところにある。昔、「外」国人しか「白(ただ)」で「渡」れない「橋」だったといふところから、「外白渡橋」の名がある。

소주하가 황포강에 흘러드는 곳에 자리한 외백도교. 당년에 외국인들이 돈을 모아 건설하고 외국인들만 무료로 지나다니게 하고 중국인은 통행 못하게 하므로 중국사람들이 염오감을 품고“외백도교(外白渡橋)”라 불렀다.